

붕어빵

최현준

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
낚시를 간다.
천 원짜리 한 장 손에 들고
쫄래쫄래 달려가
붕어 한 마리 잡는다.

뱅글뱅글 돌아가는 붕어들
아저씨의 손길 한번에
이리 뒤집히고 저리 뒤집혀
열 마리가 똑딱 잡힌다.

파닥파닥 갓 잡은 붕어 한 마리
찬 바람에도 김이 모락모락.
붕어와 인사 나눌 새도 없이
한 입 덥석 베어 문다.
뜨거운 팔물에 눈물이 찢끔.

한 마리는 내가 먹고
한 마리는 엄마 드려야지.

가슴에 따끈한 붕어빵 품고 달려가면
찬 바람도 비켜 간다.